

##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GIS 안내시스템 오픈!

서울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한강시민공원 찾아가는 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안내시스템을 2005.12.23부터 6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GIS안내 시스템 개발은 그동안 한강시민공원에 육갑문, 지하도, 차량진출입로 등 접근로 156개가 설치되었지만 정작 가는 방향이 여러곳이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클릭 한 번으로 보다 빠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축하였다.

특히, 한강시민공원이용시 공원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접속하여 '한강시민공원 인터넷 GIS 안내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공원내 이용을 원하는 시설 찾아가는 길이 지도상에 상세하게 표시되어 그동안 한강시민공원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을 해소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한강시민공원 내에 있는 ▷운동/체육시설(수영장·축구장·농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 등), ▷접근시설(보행자접근로·차량진입로 등),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매점), ▷생태체험(생태공원·자연학습장), ▷레저시설(자전거·인라인·선상레스토랑), ▷이벤트 및 행사등의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단순히 위치검색 뿐만아니라 원하는 시설을 클릭할 경우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사진, 전화번호, 관련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를 담았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사용중인 지도제작이나 승용차 네비게이션 지도에 이번에 개발된 GIS시스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콩나물(인터넷 지도검색 업체) 등 10여개 민간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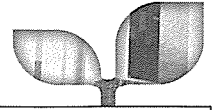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과 함께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활용 열병합 발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삼다도'라 하여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연평균 풍속이 7m/s로서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1997년~2003년까지 산자부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국비156억원, 지방비47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통해 구축된 행원풍력발전단지는 매년 2만1,900MWh의 전력을 생산해 인근 9천여 가구에 공급하고 전력 판매수입도 연간 14억원에 이른다.

행원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도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주)은 지난 2004년 한경면 지역에 6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국내 처음으로 민간풍력시대를 열었다.

또한 오는 2009년까지 34MW의 풍력발전단



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월정지역에는 국내 최초로 두산중공업, 에기연 등이 공동으로 4MW규모의 해상풍력 실증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내년 중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750kW급 풍력발전기 2기를 제주지역에 시범 보급하고 풍력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종합 홍보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태양 에너지의 보급도 증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에 15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 섬 지역 전체 46가구의 전기공급을 자립화했다. 또 서귀포 동광마을, 한라산 윗세오름 등 국립공원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시 전역에는 약 5천기 정도의 태양열 온수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열을 활용한 농업용 냉난방, 매립가스 및 하수처리장 발생 매탄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라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의 2.1%를 충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따라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천혜 관광자원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환상도로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실증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에너지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제주도가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Island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6월 1일 전국

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청정에너지과를 신설했다.

## 강원도, 에너지시책 추진 '최우수'

강원도는 2006상반기 에너지시책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속초시를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4일간 에너지관리공단 강원지사과 합동으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06상반기에너지시책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월별 에너지소비총량제 추진실적 ▲승용차 요일제 실시현황 ▲에너지절약 등에 대한 교육실적 ▲에너지절약 홍보실적 ▲청내 부문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에너지절약 우수 추진사례로 총 6개항목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속초시가 지난달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 승용차요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시한 ▲위반차량 통제 전담인원 배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배포 ▲게릴라 에너지절약가두캠페인을 전개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우수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단위에서 우수기관은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가 군단위는 정선군, 철원군이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태백시의 4개 시·군도 본청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매월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및 매일 청내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시관(태양광에너지 홍보

관)을 관내 초·중등학생들의 현지견학 장소로 이용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동해시,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관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발굴된 시·군별 에너지절약 우수 추진 사례를 모든 시·군으로 전파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고유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오는 11월 말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전남도, 청정 시범도시 건설 추진

전라남도가 남악신도시를 청정시범도시로 건설코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관계 전문가 및 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악신도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장수명(長壽命)화’와 ‘Sun-City 건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아파트는 양적 공급과 경제적 효과로 철근콘크리트 벽구조가 주요 형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조는 노후로 인한 내구성이 떨어지고 공간의 재구성 및 구조체의 성능강화 요구 등에 융통성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도는 남악신도시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

트에 입주자의 기능요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수명화가 가능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향후 도내 모든 지역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국비 140억원과 지방비, 건설업체 자부담 등 모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계획도시인 ‘썬-시티(Sun-City)’를 건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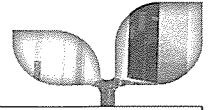
‘썬시티’는 남악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5천여 세대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주간에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보내고 야간에 이 전기를 되돌려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케 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일본 및 유럽각지에도 보급되고 있다.

### 충남도, 야생동·식물보호 200억 투입

충청남도는 야생 동·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5년간 약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 실정에 맞게 재편한 것이다.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야생동·식물의 지정·관리·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 5대 실천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계획 실행을 위해 도는 환경부의 제3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와 연계, 자연환경 우수지역 등에서의



야생동·식물의 분포 및 서식실태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 및 DB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제한적으로 서식·분포하거나 보호 가치가 높은 희귀종 또는 지역상징 동·식물을 재조정해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이들의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의 무분별한 개발 및 채취로 개체수가 급감한 자생식물에 대한 복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충남도 면적의 1.03%불과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오는 2010년까지 2.0% 172㎢로 확대하고 시·군별 보호구역 지정 목표치를 설정토록 해 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의 불균형적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유해야생동물 구제기동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내 피해능가에 대한 피해 보상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재활을 위해 도내 소재 대학교, 사업소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할 방침이다. 또 생물자원의 수집·보관과 조사연구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중부권 생물자원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북, 호남최초 생태지도 제작

전주시는 호남지역 최초로 생태계 세부 서식 현황 조사를 통한 생태지도를 제작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전북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

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합동으로 완산 칠봉을 비롯한 산과 공원 및 하천 등 총 20여개 소의·지역 생태계 현황 세부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북대 김익수 교수가 '자연환경총괄수중동물' ▲전북대 박종영 교수가 '육상동물' ▲전북대 김무열 교수가 '식물상' ▲전북대 변무섭 교수가 '자연경관식생'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한수 소장이 '조류상' ▲전주환경운동연합 김진태 박사가 '곤충상'에 대해 각각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전주시 전역의 산·하천·저수지의 생물상 분포현황 ▲식물상, 식생 및 자연경관 현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한국고유종·희귀종·외래도입종 분포 현황 ▲생물 다양성·생태계 보존 및 회복방안 등으로 현지 직접조사 및 자료를 통한 간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식물상은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전체 633분류군이, 육상동물은 곤충 잠자리류 등 15목76과165종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양서류는 도롱뇽과 등 6과11종, 파충류는 자라과 등 6과16종, 조류는 멧비둘기 등 13목 32과79종, 포유류는 고슴도치과 등 27종이 출현했다. 아울러 수중동물의 수서곤충은 9목26과55종, 패류는 3목8과19종, 어류는 7목13과6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생태계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최초로 생태지도를 제작했으며 이는 향후 학생들의 교육용 및 자연환경 관련 정책 수립·시행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행한 생태계 조사 및 생태지도는 전주시의 생태축을 고려한 도시개발 및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